지역 소식통

## 고창군, '한국 ESG 대상' 지자체 부문 '대상' 수상

고창군이 26일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2023 한국 ESG 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한국 ESG 대상'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ESG 경영 및 실천을 바탕으로 ESG 활동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 공공기관·학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고창군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고창군만의 특성을 활용한 △도시숲 조성 및 생태복원사업 추진 △농촌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지원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저탄소 한우 육성 △차별 없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등 ESG 경영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은 도시안의 녹지조성과 황토길 산책로를 설치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2050 탄소중립 실천운동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 보조사업을 추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자활기관협 대표자 회의' 개최

정읍시는 26일 2023년 자활근로사업 실적 보고와 2024년도 자활사업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과 2024년도 자활지원사업 추진 계획 방향 설정,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지역자활센터에 26억3,600만원의 자활사업비를 투입해 12개의 자활사업단(참여자 110여명)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내년도에는 27억5,700만원의 자활사업비를 투입해 취·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 국가예산 5648억 확보

### 시, 내년도 예산 전년대비 3.1% 증가… 주 현안사업 탄력

정읍시가 지난해보다 3.1% 증가된 국가예산을 확보하며 주요 현안사업과 정책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2024년도 국가예산으로 전년 5477억원 대비 171억원(3.1%) 증가한 5,648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2.8%)를 상회하는 수치로 세수감소, 경기침체 우려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하에 이루어낸 값진 성과다.

특히, 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중앙부처·기획재정부·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펼쳤다.

2024년 국가예산 주요 신규사업은 △정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장명동 각시다리터 주변(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수성2·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산내면 매죽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등 16개 사업, 총사업비 1,039억원 규모다.

시는 기초인프라 구축과 첨단산업의 지속발전,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 다양한 문화체험공간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강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필요성 등 논리를 보강해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쇠퇴돼가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출산·양육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고령화 대비 복지 확충 등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신규사업 발굴과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내년에도 시민 중심에 서서 새롭게 비상하는 정읍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꽃게자원 증대 예산 확보

### 내년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선정… 총사업비 40억원

부안군은 2024년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신규사업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지역 어업인의 주요 생산 품종인 꽃게자원 증대를 위해 지난 1년여간 변산면 격포·대항 해역을 대상으로 시험연구와 해양환경 사전영향조사 실시해 부안군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대상 품종의 서식 생태와 맞춤형 환경을 구축해 수산자원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사업으로 인공어초, 산란시설물, 종자 방류 등을 통한 어족자원 증식과 서식처 제공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꽃게는 부안에서 포획되는 대표적인 수산물임에도 최근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 꽃게자원 증대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에 따른 산란서식장 조성은 어족자원 증식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내년도 국가예산 1910억원 확보 '7.1% 성장

###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 47개 사업 반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민선8기 고창군의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191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1% 증액됐다. 정부예산 증가율이 2.8%임을 감안하면,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간의 공조체제가 빛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숙원이었던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290억원)'을 비롯해,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사업(170억원)', '고창신활력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39억원)'이 국회 단계에서 최종 반영됐다.

또한, △람사르 운곡습지센터 건립(80억원) △고창 보훈회관 건립(43억원) △무장·군유·대장 하수관로 정비(182억원) △대산 가뭄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180억원) △교촌3지구 급경사지 정비(30억원) △용현제·청솔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35억원) 등 신규 사업 47개가 반영됐다.

이에 더해 올해는 공모사업에도 잇따라 선정되며 국비 확보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375억원) △농촌협약(589억원)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100억원) △람사르 운곡습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30억원) 등이 선정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가예산 확보 성과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을 실현할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군민과 함께 위대한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담마북카페에서 'GO~CHANG UP!'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 고창군, 'GO~CHANG UP!' 행사 성료

### 취업·창업 성과보고회 열려

고창군 청년들의 온 한해 열정 가득한 도전을 응원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담마북카페에서 'GO~CHANG UP!'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역 청년과 주민 60여명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취·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성과공유회에서는 각종 청년정책에 참여한 6개팀이 차례로 발표를 진행했다. 고창에선 △잔챙이하우스(대표 유지연)=캐릭터를 활용한 의류, 이모티콘 등 굿즈 △도담공방(대표 김종민)=고창 도라지, 무화과 등을 활용한 수제 카라멜 △카페 동상이멍(대표 김수연)=고창 농산물 활용 3無(방부제/무색소/무첨가물) 반려견 수제간식 △나라정-1031카페(대표 정소영)=고창 복분자 원액, 젤리 등 △농업회사법인(유)브라더팜(대표 김한중)=풍천장어 부속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간식 △카페 잇고 있다(대표 김진욱)=수제 베이글 등의 창업 사례가 소개됐다.

2부 포럼에선 고창도시문화센터 주관으로 청년인구 유입과 청년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이어졌다. "청춘, 고창에서 펼치다"라는 슬로건으로 고창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의 역할에 대해 고창문화도시센터 시민추진단 분과장(대표 김일수)을 좌장으로 지역청년 등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플로어 토론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상설 프로그램으로 상담(직업경로 및 정신건강 등) 부스가, 부대행사로 MUSIC BAR(사연신청 및 음악감상)가 운영됐다.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창군 로컬JOB센터, 광주심리상담센터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으로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청년 및 지역주민이 음악과 함께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변산 해넘이 축제, 31일 부안 변산해수욕장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전국에서 해넘이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전북도 대표관광지 부안 변산해수욕장에서 2023년 마지막을 기념하는 '제9회 변산 해넘이 축제'를 오는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억으로 붉게 빛나는 변산'을 슬로건으로 한 제9회 변산 해넘이 축제는 31일 오후 1시에 풍물놀이, 스트릿 댄스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설숭어 잡기, 마술 버블쇼, K-팝 댄스 등 다양한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일몰이 시작 될 즈음 아름다운 변산해수욕장 해변을 무대로 한 강강술래, 해넘이 감상,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등이 펼쳐져 가족, 친구, 연인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2023년을 추억하고 2024년 갑진년의 새해 희망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새로운 도서관 명칭 '고창황윤석도서관' 확정

고창군은 최근 지명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도서관의 명칭을 '고창황윤석도서관'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신규 도서관은 고창군립황윤석실학도서관으로 이름 붙여졌지만, 명칭이 다소 어렵고 모호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전문가와 도서관 관계자들의 자문을 통해 이름을 변경했다. 고창군은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카페처럼 열린공간, 숲속에서 편안하게 지식정보를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SOC복합형 도서관 건립을 추진중이다. 황윤석은 영정조시대 고창출신 실학자로 "군자는 한가지 사물이라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정신으로 조선후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천문, 역술,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기록한 53년간의 일기인 이재난고를 펴냈다.

지난 11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돼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고창군은 이재난고를 국가 보물로 승격 추진중이며 황윤석 생가 역시 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 신청할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준공을 앞둔 고창황윤석도서관은 지하 1층은 공연장, 동아리실 등 생활문화센터 등이 설치된다. /고창=김영식 기자